

전남 동부권

여수 정도 해양관광단지내 민자사업 난항

기업들 외면... 호텔·콘도 분양 '제로'

전남개발공사 2차공고

여수 정도 해양관광단지내 민자사업이 기업들의 참여 저조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전남개발공사 여수경도사업단에 따르면 '여수경도 골프&리조트' 사업중 민자 유치로 호텔과 콘도 360실, 마리나, 기업연수원/테마파크, 상가 시설 등의 유치를 추진 중에 있다. 이 가운데 호텔과 콘도 부지 3만여평(약 200여 억원)에 대해 지난 8월 1차 분양 공고를 냈으나 입찰 참여자가 전혀 없어 유찰돼 지난 19일 2차 분양 공고를 낸 상태다. 분양 공고는 최종 3차까지 하고 유찰될 경우 수의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되지만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시설로 지정돼 인·허가 등 행정 절차 간소화와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민제 적용(5억이상 투자할 경우 영주권 부여), 부지 대금 3년 무이자 할부 조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해 애를 먹고 있다. 기업체들은 호텔과 콘도의 부지 매입비가 만만치가 않고, 박람회 이후 경제성 여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아 쉽게 뛰어 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전에는 차량 100대를 수용하는 오토 캠핑장과 100실 규모의 콘도, 골프장 18홀 등의 일부 시설만 개장이 가능하게 된다. 전남개발공사는 당초 박람회 개최 전 숙박시설 300실, 호텔 및 콘도 360

실 등을 계획했으나 민자 유치의 고전으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전남개발공사는 제주도가 투자 이민제 적용 이후 200여건의 투자 유치 실적을 올린 점을 감안해 현재 고전하고 있지만 호전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기업들이 호텔의 경우 박람회 이후 경영 수익에 대해 가장 고민하는 것 같다"며 "현재 4~5곳의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고, 투자이민제 적용 이후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오는 11월 해외 부동산박람회에도 참여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사랑해요 '찰락' 보성군 회천면 북재 다향각 인근에 조성된 하트 모양의 토피어리(topiary) 포토존에서 어린이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보성군은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성차밭의 아름다운 경치를 편안하게 조망할 수 있도록 포토존과 데크 산책로를 설치했다. <보성군 제공>

한국 민속예술축제 여수서 열린다

내달 6~9일 거북선 공원... 청소년 예술제와 함께

'제52회 한국 민속예술축제'와 '제18회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제'가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여수 거북선 공원 일원에서 동시에 열린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 기원과 영·호남 민속예술의 화합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아오 동동다리 열수 동동다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문화관광부, 전남도, 여수시가 공동개최한다. 특히 민속예술 경연대회(일반부, 청소년부)인 본 행사 외에 특별 프로그램으로 바다를 연다는 의미의 '개열림'이라는 예비축제를 여수 연안과 바다를 배경으로 17일 송소마을에서 개최한다. 이는 2012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축원하고 민속예술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행사 기간에는 '동몽'이라는 여수 민속예술인의 밤, '창작 연희공연', '막걸리와 민속' 등의 프로그램과 6명의 명인들의 전통춤 향연인 '마당춤 명무전' 등 흥겨운 한마당이 펼쳐진다. 초청공연으로는 전남도 대상팀인 강원도 '양양군 소동골 상여소리', 전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거문도뱃노래', 전남도 무형문화재 제7호인 여수 '현천 소동래놀이', '완관 호남 우도놀이' 등이 공연된다. 이번 축제에는 일반부 (전국 사·도 및 이북 5도) 21개 팀과 청소년부 15개 팀 등 총 2500여명이 참가해 경연을 벌이며, 대상 수상 팀에게는 각각 대통령상과 1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장재민 여수시 문화예술과장은 "전국에서 참여하는 대규모 축제인 만큼 내년 여수세계박람회와 훌륭한 전통민속예술을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추석장사 씨름대회 여수 유치한 백낙천 전남협회장 "민족 고유의 문화로 박람회 홍보"

"박람회를 찾는 외국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고유의 민속씨름만 한 것이 없습니다." 최근 여수에서 열린 '2011 추석 장사씨름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백낙천(63) 전남 씨름협회장은 "5000여명을 수용하는 여수 진남체육관이 대회기간 내내 입추의 여지없이 들어찬 관중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수 시민의 성원에 대해 해설자로 나선 천하장사 출신 이만기 교수(인제대 사회체육학과)는 "참제된 씨름에 부활의 신평탄을 쏘았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박람회 유치 과정에서 전국적인 홍보 한번 제대로 못했던 여수시는 대회 전 기간 동안 공중과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홍보효과를 톡톡히 봤다. 전남도의 F1대회 홍보도 광고비 한 푼 들이지 않고 4일 내내 방송을 탔다. 이번 대회는 당초 경남 함양으로 정해졌으나 평소 씨름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김충서 여수시장의 갑작스런 제안에 따라 백 회장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반드시 씨름대회를 여수에서 열어야한다는 점을 들어 대한 씨름협회를 설득했다. 백 회장의 꿈은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기간 3개월 동안 세계인들에게 씨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백회장은 "민속씨름에 대해 조금 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백 회장은 2대에 걸친 씨름 가족이다. 백회장의 차남 성욱(30)씨도 3차례나 백주장사에 오른 전남씨름의 간판 스타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방을 탔다. 이번 대회는 당초 경남 함양으로 정해졌으나 평소 씨름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김충서 여수시장의 갑작스런 제안에 따라 백 회장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반드시 씨름대회를 여수에서 열어야한다는 점을 들어 대한 씨름협회를 설득했다. 백 회장의 꿈은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기간 3개월 동안 세계인들에게 씨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백회장은 "민속씨름에 대해 조금 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백 회장은 2대에 걸친 씨름 가족이다. 백회장의 차남 성욱(30)씨도 3차례나 백주장사에 오른 전남씨름의 간판 스타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시·군·구 통합 주민이 이뤄내야 효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토론회

순천시시는 지난 16일 시청별과 대회의실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제정에 이어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출범, 시·군·구 통합 기준이 확정 발표되면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이창용 순천시의원, 전남 동부지역사회연구소 장재열 소장이 토론자로 나서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열린 토론을 펼쳤다. 이번 월간 지방자치 이면에 대표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 및 시·군·구 통합은 대규모 목적 사업을 위해서는 통합이 되어야 하며 통합은 지방자치 안에서 주민 스스로 해낼때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창원대 정재욱 교수는 '통합 창원

시 출범 비전과 현안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통합 논의가 되어야 하며 통합후에는 시민 사회 교육 확대 및 지역 문화축제 개발 등 정부의 인센티브 약속이 꼭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일 변호사(순천 경제정의실천 시민생활 상담소장)는 "통합이 되면 대기업의 지원이나 대학의 발전뿐 아니라 중소도시로 소외되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순천시가 합은 대규모 목적 사업을 위해서는 통합이 되어야 하며 통합은 지방자치 안에서 주민 스스로 해낼때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광양 매화 반딧불 작은도서관 내일 개관

광양읍 매화아파트 관리동 1층에 '매화 반딧불 작은도서관'이 21일 문을 연다. 광양시는 총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해 131.82㎡(39평)의 규모에 도서 3200여권을 소장한 '매화 반딧불 작은 도서관'을 세웠다. 반딧불 작은도서관은 유아방, 어린이실, 다목적실, 정독실 등 4개 자료실로 차별화된 공간을 갖는다. 유아

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내 집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돌마루를 설치했다. 작은 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도서 검색과 대출·반납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앙도서관과의 회원증 공유가 가능하여 중앙도서관 소장자료도 대출받을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pyj4079@

전 북



"기초수급자 소득기준 상향 조정해달라"

탈락시 생계·의료·교육 지원 일정 기간 유예해야 전북 시장·군수협, 정부차원 제도 개선 보완 촉구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송하진 전주시장·이하 협의회)는 지난 16일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에서 민선 5기 제5차 협의회'를 열고 당면한 지방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일체 조사결과에 따른 보장종지 및 급여감소 등으로 실질적 생계곤란자가 발생하고 일부 탈락자의 경우 극한상황으로 치닫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현행 불합리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정부차원에서 한시라도 빨리 개선 보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시장·군수의 서명을 받은 촉구 건의문을 채택, 이를 중앙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건의문에서는 "사전 대책 없이 가장 영세한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정책은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고 표명하고 제도를 개선·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정부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범위 조정 및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해 저소득층 기초생활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기초수급자 탈락(보호종단)시 일정기간 생계급여 및 의료·교육 급여 지원 등 유예기간을 설정 지원, 이들의 충격을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탈락자중 가족관계 단절 및 부채(사채) 등으로 인한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업무지침 마련과 일자리 제공 등 생활안정을 위해 실질적 추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군산해상 위그선 정박지 조성 차질

바지선 등 이전비용싸고 갈등...내달 취항 힘들 듯

군산~제주간 위그선 취항을 앞두고 추진 중인 군산지역 정박지 조성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위그선 제조업체인 원림중공업과 운행 선사인 오션익스프레스는 군산비용항 월명유류선 앞쪽 해상을 위그선 정박지로 결정하고 이달 말부터 조성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곳에는 50인용 위그선이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하지만, 현재 이곳 해상에 폐어선과 바지선, 수상레저보트 등 10척이 방치돼 있어 정박지 조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원림중공업은 이를 선주에게 이전비 명목으로 일정액의 지급을 제안했지만, 일부 선주가 자신들의 '요구조건'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선주는 원림중공업측에서 협상 타결 없이 바지선 공사를 강행하면 이를 적극 제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군산시,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군산해경은 국책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들 업체와 선주간의 갈등 조정에 미온적이다. 따라서 원림중공업은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타결되지 않을 시에는 행정

기관에 의뢰해 강제 철거한 뒤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충돌이 우려된다. 원림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선주가 바지선과 폐어선을 자진 철거해주시기 합의를 상태"라면서 "일부 선주의 의견이 다르지만 원만하게 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당초 10월로 예정됐던 위그선 취항은 일러야 11월경이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취재본부=박성태기자 nogsu@

남원시, 반야봉 케이블카 유치 기원 등반대회

남원시는 지난 17일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반야봉 케이블카 설치의 성공적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 '산악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산행은 김형만 남원시장 권한 대행, 일부 선수가 자신들의 '요구조건' 등 총 100여명이 참가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뉴스 브리핑

서해안 김양식 채묘 내달초·중순 최적기

전북도는 올해 김 양식 채묘(採苗)시기는 10월 2~6일(1차)과 17~21일(2차)이 최적기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최근 수온의 하강 추세를 볼 때 다음달초 채묘 기간의 수온은 섭씨 21~22도 내외로 전망했다. 김 채묘는 대체로 수온이 21~

22도 사이일 때가 파래나 따개비 등 잡조류의 부착이 적은 대신 김 포자의 부착률은 높은 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파래나 따개비 등 잡조류의 부착이 심할 때에는 수온이 20도 전후에 채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송천 도서관 22일 음악·시 어우러진 북 콘서트

전주 시립도서관(관장 안병수)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22일 저녁 7시30분 송천 도서관에서 책과 음악, 시가 어우러진 북 콘서트(Book concert)를 개최한다. 이번 북 콘서트는 '신화의 숲에서 사람을 만나다' 저자 최복현씨 특강과 국악인 변금자씨의 가야금 산조, '신 사랑가' 한마당 배우

기, 지역 명사의 애송시 낭송 순으로 진행된다. 안병수 관장은 "책과 이야기와 음악이 만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063-278-9403)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정읍시, 값 안올린 '착한 가게' 5곳 추가 선정

정읍시와 대한주부클럽 소비자기교발전센터 정읍시지부는 19일 어려운 여건에도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아 물가 안정에 이바지한 '착한 가게' 5곳을 추가 선정하고 명판식을 가졌다. 지난 4월 1호점(짜장궁·대표

김명숙)과 2호점(크로마 미용실·원장 최숙자)에 이어 이번 추가선정된 가게는 빛나미용실(상동), 황금돼지(상동), 영천칠병면갈비(수성동), 오죽한가든(용계동), 중국성(시가지)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김제보건의료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 모집

김제시 보건소(소장 이병철)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민, 결혼이민자 가구 등 건강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혈압측

정, 혈당검사, 콜레스테롤 검사를 비롯한 ▲기초 건강검사 ▲건강상담 ▲기저귀, 간호용품 제공 ▲휠체어·재활장비 대여 ▲치매예방을 위한 상담 서비스 등 포괄적인 보건요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취재본부=홍순진기자 hnews@

해바리꽃밭에서 맞는 가을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해바리꽃이 만발한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장을 찾아 가을 정취를 즐기고 있다. 이곳에서는 다음달 3일까지 '매밀꽃 잔치'가 열린다. /연합뉴스